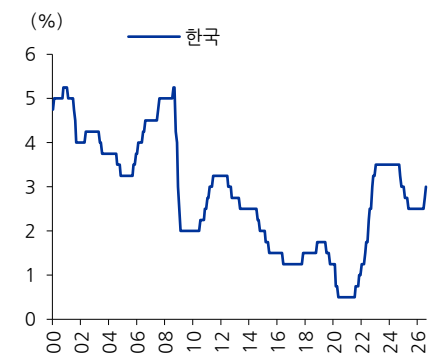


10월 금통위 Preview: 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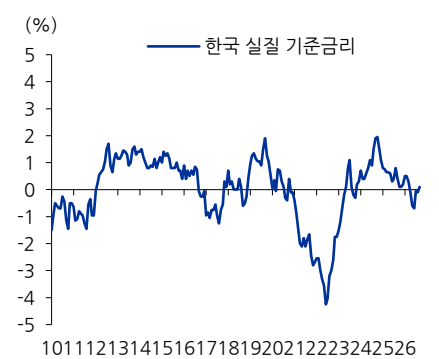
- “ 10월 금통위 동결 전망. 7~8월 연속 인상 이후 긴축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인상 여력을 확보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 소수의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며, 전체적인 톤은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 8월 금통위 인상 당시 발언이 가장 큰 근거. 당시 총재는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면서도 연속 인상을 선제적이며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언급.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역시 추가 1회(3.25%) 인상으로 향후 인상 결정은 점진적일 것임을 시사. 이후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도 +2.9%(YoY)로 낮아졌기 때문에 인상 필요성이 더 높아지지도 않았음. 신현송 총재는 12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속 인상으로 시간을 벌었으며 통화정책 수행 시 경제주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고 강조하는 등 쉬어 가는 뉘앙스를 표현.
- “ 다음 인상 시점은 11월이 될 가능성 높은 상황. 3% 기준금리가 부담스럽고, 긴축의 영역에 진입하긴 했으나, (+)로 전환한 국내 GDP갭률과 국제유가 등 대외 발 인플레이션 요인, 높은 성장률 등은 추가 인상을 뒷받침하는 요인들. 특히 한은은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높은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 반도체 중심 성장세 등에 대한 한은의 전망이 변함없다면 11월 인상은 충분히 가능. 기존 매파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11월 인상을 시사해줄 것으로 예상.
- “ 최근 반도체 관련 기업 주가가 하락했지만, 주가 하락이 한은의 스탠스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이미 이전 회의를 통해 1) 반도체 기업 주가가 아닌 전체 사이클과 수출 등 실물지표를 중시한다 2) 기타 국가에 비해 한국의 주식 상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입장을 반복해왔기 때문.
- “ 추가로 최근 금리 급락 중이나 추세적 강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금리 하락의 시작은 국고채 발행 축소였고 하락폭을 확대시킨 것은 AI 투자 의구심에 따른 기술주 급락에 따른 반사효과. 기준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기간 프리미엄 상승 등 채권시장 내부적으로 금리를 상승시켰던 요인들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 지금의 강세가 추세적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가 하락이 아닌 인상 기조의 중단, 고금리 부작용과 물가지표 안정 등 보다 근본적으로 채권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

한은 기준금리 인상, 10월은 쉬고 11월 가능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실질금리 (+)로 긴축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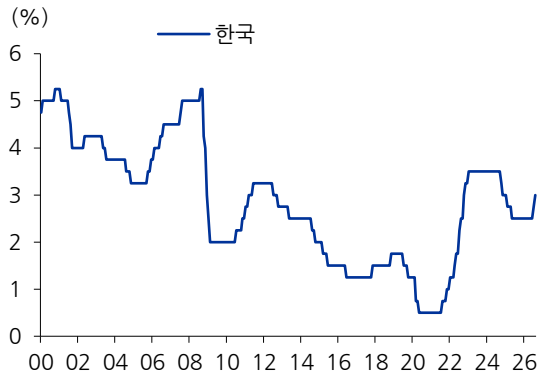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9월 물가, 2%대 진입하며 소폭이나마 개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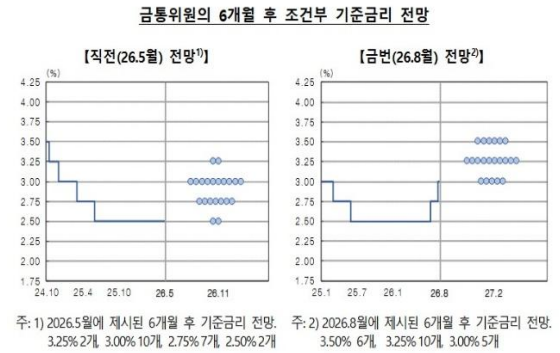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한은 기준금리 인상, 10월은 쉬고 11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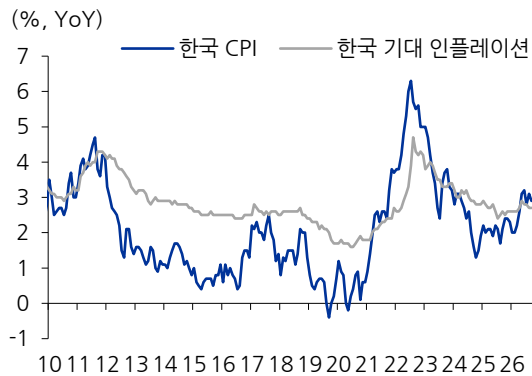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8월 포워드 가이드스, 6개월 내 1회 인상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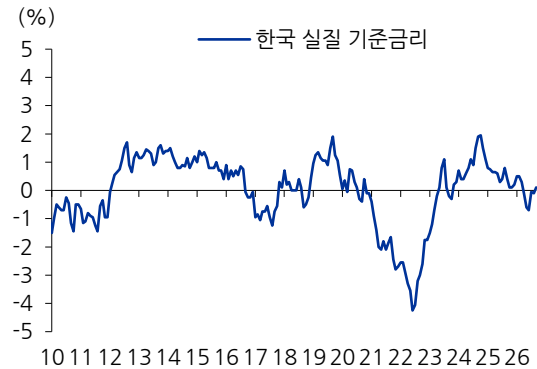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9월 물가, 2%대 진입하며 소폭이나마 개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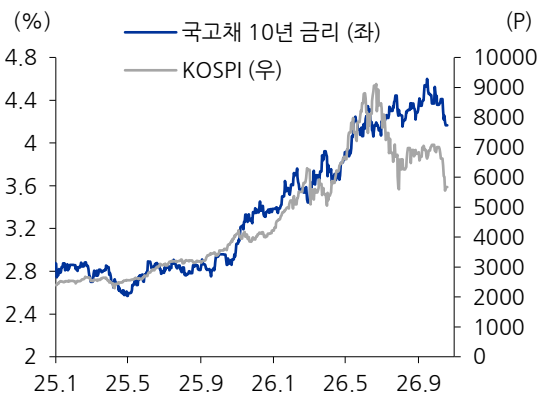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7~8월 연속 인상으로 실질금리 (+)로 긴축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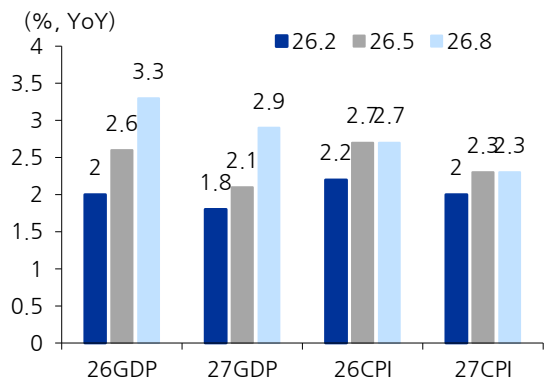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가 반락으로 안전자산 선호에 금리 하락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11월 경제전망 조정 가능성 시사할지 여부 중요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